

2002년 APDC 서울총회

미래의 꿈, 인류봉사정신 실현 치과의학

2002년 APDC 서울총회, 준비 착착

2002년 4월 서울에서는 또하나의 치과의사를 위한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 국제행사는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APDC) 서울총회로서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치과의사를 하나로 엮어주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치협은 지난 99년 6월 첫 번째 조직위원회 모임을 갖고 4월 현재까지 23번의 회의를 갖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관리본부, 학술본부, 행사본부, 홍보본부, 여성본부, 전시본부 등 6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위원장은 홍순용, 사무총장은 손창인, 부위원장은 김영수·신영수·조행작 국제이사가 맡고 있다.

각 본부장은 관리가 김동기, 학술이 홍삼표, 행사가 신상완, 홍보가 김지학, 여성이 허유희, 전시를 우중윤 자재이사가 관장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1999년 FDI 멕시코 총회, 2000년 FDI 파리총회, 1999년 아태회의 동경총회, 2000년 아태회의 대만 총회 등 국제적 행사에 참여, 총회기간 중 코리안런천과 코리안나이트를 개최하고 한국에서의 행사를 알리고 있다. 오는 9월에 개최될 FDI 말레이시아 총회에도 참석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다.

표. APDC 연도별 개최현황

차수	년도	개	최	지	개	최	일	자
제 1차	1955	일	본	도	쿄	1955. 10. 13 ~ 10. 16		
제 2차	1958	필	리	핀	마	닐	라	1958. 3. 24 ~ 3. 30
제 3차	1961	일	본	도	쿄	1961. 10. 17 ~ 10. 22		
제 4차	1964	싱	가	폴		1964. 3. 24 ~ 3. 29		
제 5차	1967	한	국	서	울	1967. 4. 24 ~ 4. 28		
제 6차	1970	태	국	방	콧	1970. 11. 18 ~ 11. 22		
제 7차	197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		1974. 6. 18 ~ 6. 22		
제 8차	1977	핀	마	닐	라	1977. 2. 7 ~ 2. 11		
제 9차	197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1979. 4. 23 ~ 4. 27		
제 10차	1981	싱	가	폴		1981. 3. 26 ~ 3. 31		
제 11차	1984	홍		콩		1984. 11. 5 ~ 11. 10		
제 12차	1985	태	국	방	콧	1985. 12. 5 ~ 12. 10		
제 13차	1988	인	도	뉴	델	리	1988. 1. 28 ~ 2. 1	
제 14차	1989	한	국	서	울	1989. 4. 26 ~ 4. 30		
제 15차	1992	뉴질랜드	오크랜드			1992. 3. 8 ~ 3. 12		
제 16차	199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1993. 4. 22 ~ 4. 27		
제 17차	1994	필	리	핀	마	닐	라	1994. 2. 3 ~ 2. 9
제 18차	1996	인	도	봄	베	이	1996. 1. 19 ~ 1. 23	
제 19차	1997	스	리	랑	카	콜	롬	보
제 20차	1998	태	국	방	콧	1998. 1. 18 ~ 1. 23		
제 21차	1999	싱	가	폴		1999. 4. 21 ~ 4. 25		
제 22차	2000	일	본	도	쿄	2000. 5. 25 ~ 5. 30		
제 23차	2001	대			만	2001. 4. 7 ~ 4. 11		
제 24차	2002	한	국	서	울	2002. 4. 3 ~ 4. 7		
제 25차	2003	필	리	핀	라			
제 26차	2004	홍		콩				
제 27차	2005	말	레이	시아				

치협 종합학술대회도 함께 개최

2002년 제24차 APDC 서울총회에서는 협회창립 81주년 제44회 종합학술대회도 함께 개최된다.

주제는 'Dream, Devotion, Dentistry'. '미래의 꿈과 인류봉사정신을 실현하는 치과의학'이라는 의미이다.

우선 부주제는 'New era in dentistry'이며 소주제는 Computerized dentistry, 치과의 신기술 및 신소재, 장애인을 위한 치과신진료, Failure and Solution, Controversial Dental Treatment로 구체화 시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0개의 특강과 14개의 심포지엄이 확정됐으며 이외에도 자유연제, 테이블클리닉, 포스터 등이 게재될 예정이다.

특강과 심포지엄 내용은 치과의사의 관심이 높은 교정, 보철,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기초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강에서는 임상에게 유용한 내용을 비롯, 치과계 역사를 조명하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치의학 교류사'에 대한 내용과 악안면기형환자의 의료진료 봉사활동과 치과의사의 역할을 다루는 내용이 마련돼 있다.

특강에서는 4명의 해외연자를 초청, 해외 치의학에 대한 최신지견을 소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측두하악장애와 구강안면동통, Advanced New Knowledge of Oral Cancer, Computer Aided Radiography in Dentistry, 보존 심미수복재의 현황과 국내 생산 심미수복재의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 특강 및 심포지엄의 연제와 개최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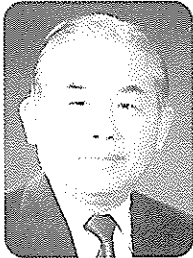
심포지엄	날짜
I. 측두하악장애와 구강안면동통	4월 4일
1) 악관절 내장증과 염증성 관절장애의 진단과 치료	
2) 근육성 측두하악장애의 진단과 치료	
3) 측두하악장애와 구강안면동통의 진단술식과 도구	
4) 이갈이의 진단과 치료	
5) 비치성 치통과 만성 구강안면통증의 진단과 치료	
II.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악안면기형에 관한 것 포함)	4월 4일
1) 광유도 형광현미경을 사용한 구강암 및 전암병소의 가능한 진단법	

심포지엄	날짜
2) 구강암을 위한 구강 및 피부상피의 분화 표식자차이	
3) 구강 전암병소에서 생물학적 표식자	
4) 구강 편평세포암종에서 외세포물질(adhesion molecule, MMP등)의 침습 및 확산인자	
5) 구강 편평세포암종에서 유전자의 다양성	
III. 보존 심미 수복의 현황과 국내 생산 심미 수복재의 평가	4월 4일
1) 보존 심미 수복의 현황	
2) 국내 생산 심미 수복재의 현황 및 평가	
3) 보존 심미 수복의 임상 평가	
4) 보존 심미 수복의 신개념 및 새로운 시술법	
5) 상아질 접착의 신개념 및 새로운 시술법	
IV. 맹출장애	4월 5일
1) 생리적 관점	
2) 해부학적 관점	
3) 교정적 처치	
4) 외과적 처치	
V. 임플란트 수복의 교합	4월 5일
1) 외과적 고려사항	
2) 생역학적 고려사항	
3) 가철성 수복물의 교합	
4) 고정성 수복물의 교합	
VI. 치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방사선사진촬영법	4월 5일
1) 디지털 방사선사진촬영법을 이용한 골밀도의 평가	
2) 치과병원에서 디지털 방사선사진촬영법의 활용계획	
3) 치과에서 이용되는 디지털 방사선사진촬영법	
4) 컴퓨터를 이용한 치의학 교육	
5) 악교정술시 3차원 영상의 적용	
VII. 임플란트 진료 실패의 처치 및 예방법	4월 5일
1) 임플란트 수술시 합병증과 그 대책	
2) 상악동거상술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치주질환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와 문제점의 해결	
4) 임플란트 보철의 문제점과 이의 근원적 예방	
5) 발생하기 쉬운 임플란트 보철의 실패	
VIII. 디지털 치과치료	4월 5일
1) 디지털 치과치료의 현황과 전망	
2) 디지털 의료의 임상적용	
3) 사례발표	
IX. 치주조직 재생에 있어서 조직공학	4월 5일
1) 치주조직 재생에 있어 bone graft역할	
2) 치주조직 재생에 있어 혈소판 농축 혈장의 역할	
3) 치주조직 재생에 있어 growth factor의 역할	
4) 치주조직 재생에 있어 BMP의 역할	
X. 실패사례와 해결책	4월 6일
1) 임플란트 보철 수복시 공명 주파수 분석법의 응용	
2) 컴퓨터를 이용한 교합 진단과 치료	
3) 삼차원 컴퓨터 영상을 이용한 정밀한 임플란트 수복의 계획	
4) 레진접착 가공의치와 임플란트 보철의 비교	

심포지엄	날짜	심포지엄	날짜
5) 총의치 보철의 실패사례 및 해결책 6) 노인환자의 치료계획과 보철치료 XI. 매복치아 발치에 관한 최신지견 1) 매복치아를 발치 할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오승환) 2) 상악 매복치아의 효과적인 발치술 및 환자관리(이재훈) 3) 하악 매복치아의 효과적인 발치술 및 환자관리(박영욱) 4) 매복치아 발치와 관련된 합병증 및 예방(고승오)	4월 6일	XV. 치과용 레진계 수복재료 1) 치과 수복을 위한 접착 치학의 현황 2) 복합레진을 이용한 수복, 보존 수복시 발생하는 민감증 3) 레진계 수복재료의 생체친화성	4월 6일
XII. 교정치료와 관련한 의외사고 1) 교정과 영역의 의외사고와 분쟁의 성격분석 2) 교정치료와 의료분쟁 사례 3) 의외사고의 법적 대응전략 4) 의외사고 예방을 위한 교정치료	4월 6일	특 강 I. 타액의 진단학적 활용 II. 근관치료에서 엔진구동기구 사용의 현재와 미래 III. 퇴축된 악골에서의 임플란트 시술 IV. Osstelltm의 임상적용 V. 한국,중국,일본 치의학 교류사 VI. 난치성 치주질환의 다양한 치료방법(Per Gjermo) VII. 임플란트 수술의 실패 및 대책 VIII. Electroforming을 이용한 보철물 제작 IX. 악안면기형환자의 의료진료 봉사활동과 치과사의 역할 X. 치과용 레진계 수복재료의 과거, 현재 및 미래	4월 4일 4월 4일 4월 5일 4월 5일 4월 5일 4월 5일 4월 6일 4월 6일 4월 6일
XIII. 구강악안면결손의 재건과 기능회복 1) 골이식술에 의한 악골결손의 재건 2) 구강악안면 연조직의 외과적 재건 3) 악관절의 재건과 기능회복 4) 구강악안면 신경손상의 재건과 예후 5) 구순구개열의 언어 재활치료	4월 6일		

2002년 APDC 서울총회, “성공 예감”

회원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필요한 때



홍 순 응
제24차 APDC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APDC 서울총회가 개최되기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습 니다. 이제부터는 회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24차 APDC 서울총회의 기수 홍순웅 조직위원장. 홍위 원장은 역사적인 행사의 순간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 금이 회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때가 도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위원장은 99년 6월에 조직위원회 1차 회의를 갖 고 현재까지 총23차례의 회의를 거듭하며 행사의 성공적 마 무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

APDC 총회는 단순히 학술대회와 전시회 등의 행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한국치과계의 현주소를 세계속 에 알리는 것이며 한국문화까지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 은 기회다. 홍위원장은 지난 89년에 개최된 제14차 APDC 서 울총회의 전시본부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 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2002년 4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주력한 것은 한국의 APDC 서울총회를 널 리 홍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99년에는 싱가포르 아태회의와 멕시코 FDI총회 에 참석했으며 작년에는 일본의 아태회의와 파리 FDI총회에 참석했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 4월에 개최된 대만 아태회의 에 참석, 코리안 런천을 통해 아태회의의 서울총회를 적극 홍보했다. 오는 9월에는 말레이시아 FDI총회에 참석해 총력을 기울여 홍보할 계획에 있다.

홍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국내의 회원을 상 대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 국내회원을 위한 안내문을 작성해 5월경에 배포할 예정 에 있다.

“Dream, Devotion, Dentistry라는 주제에 걸맞은 종합적 이고 훌륭한 내용을 담은 연제와 연자를 선정했습니다. 모 든 회원이 참석해서 학술의 향연을 맡겠 누리기를 기대합니 다”라고 홍위원장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년여동안 조직위원회를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회식과 전시장소의 선정문제.

2002년 월드컵 경기로 인해 코엑스에서 대회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으나 다행히도 코엑스 신관인 아셈회 관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또다른 어려운 문제는 APDC 서울총회를 APDF매뉴얼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 그러나 한국에 불리한 점들을 조 율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는 등 행사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APDC 동경총회와 APDC 대만총회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무료로 등록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상의 문제 때 문에 외국인에게 등록금을 부여하게 돼 외국인의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함께 6개 본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서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홍위원장은 미래의 꿈과 희망의 인류봉 사적 치과의학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대회에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